동아연구 제38권 1호(통권 76집, 2019) pp. 41~72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김 미 영**·이 유 아***

요약

본 연구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유학 중 진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과 진로준비 진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8명과 베트남 유학생을 지도하는 한국인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핵심적인 주제와 내용을 도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의 2개 범주로 구분되었다. 진로스트레스는 3개의 하위범주인 진로변경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가족의 진로간섭으로 인한 진로스트레스가 도출되었다. 진로변경 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는 각각 두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목표변경, 대학원으로의 진로변경, 취업불안, 취업준비부족, 가족의 진로간섭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베트남 유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은 3개의 하위범주인 베트남 유학 선배를 통한 진로정보취득, 한국인 교수와 대학으로부터의 정보취득, 진로탐색 과외활동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준비를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비서학과 부교수, mykpufs@bufs.ac.kr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창의융합학부 부교수, yooah@bufs.ac.kr

위한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베트남 유학생, 진로스트레스, 진로탐색활동, 진로준비, 질적연구

Ⅰ. 서론

교육부(2018)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85,923명에서 2016년 104,262명, 2017년 123,85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는 중국 68,184명(55.1%)이 가장 많으며 다음 베트남으로 14,614명(11.8%), 몽골 5,384명(.4.3%), 일본 3,828명(3.1%)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지역 유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8).

중국유학생 수는 2017년 기준 전체 유학생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6.6% 이후 2013년 67.7%, 2016년 6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베트남 유학생은 2010년 1,667명으로 전체 2.8%였으나, 2013년 3,8%에 이어 2017년에는 11.8%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17). 이는 1992년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정식수교 이후 베트남이 한국을 경제발전모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송정남, 2015),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1위 교역 국가인 베트남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음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KOTRA, 2018).

그동안 수행된 재한 유학생 관련 연구는 유학생들의 학업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김대현, 김아영, 강이화, 2007; 하정희, 2008). 이와 더불어 국내 유학생들이 대학생활과 국내 유학생활에서의 현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며 재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생활과 현지적응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제시되

고 있다(김미영, 이유아, 송연주, 2018; 응웬 뚜언 아잉, 응웬 마인 뚜언, 2015). 최근에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한 후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결정에 관심을 보이며 진로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이사사, 2012; 이태현, 김민지, 2016).

대학시기는 진로발달단계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며 특정 진로분야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시기이다(Zunker, 2002). 유학생들의 유학목적도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이수 등의 특수한 목적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준비확장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진로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연구는 김수경(2015)이 이공계 베트남 출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로활동을 탐색한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베트남은 중국과는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Hofsted, 1986), 중국 유학생의 진로관련 연구결과를 베트남 유학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관련 생각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시기의 학업생활은 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학생들도 대학생활에서 진로와 취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나 진로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하정희, 2008). 베트남 유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유학 후 한국과 베트남 교류에 준비된 인재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재한 베트남 유학생의 진로준비 지원은 문화교류를 포함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학업적응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파악하고 지원한다면 유학생활의 만족뿐만 아니라 유학생활의 중도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유학생들의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행된 재한 유학생의 진로관련 연구 대부분은 계량적 연구를 통해 유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벽과 진로준비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사사, 2012; 허형원, 손은령, 2012). 그러나 수치로 나타난 요인간의 관계정도를 통해 진로에 관한 유학생들의 내재적 측면인 심적 갈등이나 실제 유학생들의 실제 경험, 문화적 특성에 따른 활동 등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유학기간 동안 경험하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은 질적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로에 관한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위한 이들의 구체적 탐색활동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진로상담과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동료관계, 이성에 대한 적응, 부모와의 관계 및 진로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Houston, 1991),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생애 처음 사회진출을 앞두고 희망하는 직업을 찾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진로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가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취

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이상희(2012)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스트레스 중 진로모호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진로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김명옥과 박영숙(2012)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발생하고 스트레스 수준도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은주(2016)는 진로장벽이 부분적으로 진로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미진 외(2009)는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준비 중 진로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취업준비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사사, 2012; 정은이, 2009; 허형원, 손은령, 2011). 이사사(2012)는 서울 8개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결정상태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진로장벽의 차이를 분석하여, 진로결정성보다 진로정체감에서의 편안함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학생들은 진로결정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진로결정에 부정정서를 겪지 않으므로 진로장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유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정희(2008)는 중국유학생의 대학적응에 관한 질적연구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미래 및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유학생들은 유학생활 중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며 고향의 가족으로부터의 기대감에서 오는 취업압박을 경험하고 있었다. 허형원과 손은령(2011)의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유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은 개인적 특성 부족, 대학의 진로지원 부족, 주변사람의 기대, 직업능력 부족과 낮은 직업준비도로 보고하였으며, 중국유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기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유학생들도 한국과 유사하게 가족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것이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효선과 김은수(2018)는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과 진로성숙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체류기간이 길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학생 대상 진로관련 연구들은 유학생활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제시되거나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에 관심을 보여 왔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어 해외 유학생의 유학목적을 생각한다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학 유학생의 진로관련 선행연구의 대상이 중국유학생에 집중되어 있으나 베트남의 가치와 문화는 중국과는 다르므로(Hofsted, 1986), 베트남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스트레스나 진로관련 경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준비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대학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특정 진로분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이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Zunker, 2002). 이와 같이 대학시기는 진로준비를 통해 학업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 최윤경과 김성회(2012)은 대학생의 진로준비를 일과

관련된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하며 진로준비를 행동과 더불어 이해, 탐색 등의 인지적 차원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 진로탐색활동은 개인이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대안들을 검토하며 결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직업결정 및 직업선택을 위한 제한적 활동의 개념이다(Smith & Gerhart, 1991). 재한 유학생들의 진로행동은 국내학생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진로탐색활동으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대학생활과 학업에 적응해 가며 진로준비를 한다. 장경문(2005)의 연구결과 대학생의 학업적응이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활만족에도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활동에는 성별, 학년, 학점, 일의 경험 등의 개인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이현주, 2008).

최근 대학생의 진로준비를 위한 대학의 지원이 증가되며, 대학의 취업특강, 취업상담 등의 지원이 개인의 진로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보고되고 있다(성희진, 나승일, 2012). 충남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한 질적탐색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목적이 전공학습, 취업목적 및 외국어 습득임을 파악하였으며 대학의 지원부족과 언어문제 등으로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정은이, 2009). 이를 통해 유학생의 진로준비도 개인의 준비의 문제만이 아닌 대학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경(2015)은 질적연구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인 베트남 유학생 10명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진로활동을 탐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대

부분이 유학을 본국에서 더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태현과 김민지(2016)는 일본, 중국, 프랑스 등 다양한 출신국가의 재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인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으며, 서구권 유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일본과 중국 유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중국에 비해 선진국인 남미, 유럽, 미국, 일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가 중국 유학생보다 명확하여 이것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국가별로 구분한 것과 달리 취업의지와 준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출신국가별 유학생의 취업의지와 진로준비 및 탐색활동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베트남 유학생관련 선행연구

베트남 유학생들이 증가하며 이들의 대학적응 및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왕수영(2019)은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교육만족에 교육의 질과 함께 대학의 행정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였다. 윤영주와 장소영(2016)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어 미숙 및 존댓말 사용 등의 문화차이로 유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유학생들이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들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미영 외(2018)의 연구에서도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저개발국으로 평가하며 무시하는 것에 불편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베트남 가족들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용돈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미영 외, 2018; 윤영주, 장소영). 안진우(2018)는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요인을 비교분석하여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아지며, 중국 유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을 심도 깊게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소재 A대학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A대학에는 2017년 기준 26개 학과에 403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었다. 이중 중국유학생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유학생은 53명이었다. 3학년 이상 베트남 유학생은 50명으로 베트남 유학생 대부분 3학년 이상 재학 중이었으며, 이중 47명은 한국어학부 외국인반에 재학 중이었으며, 3명은 언어계열전공에 재학하며 한국학생들과 함께 수강하고 있었다. 한국어문학부 베트남 유학생 중 36명은 복수학위를 위한 교환학생이었으며, 13명은 학사편입, 1명은 장기수학자였다. 베트남 유학생의 진로에 관해 심도 깊고 풍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반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한국학생들과 함께 재학 중인 학생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참여할 유학생을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여학생 8명이었고, 한국어학부 5명, 언어계열 3명이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터뷰 대상자들의 베트남 유학생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인 전임교수 2명을 추가 선정하여 교수자가 인식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 및 특징 등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상세정보는 <표 1>과 같다.

질적연구에서는 소규모 표본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정하고 연구대상은 목적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Merriam, 2010). 베트남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2년 이상 전공한 후 교환학생으로 부산 A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어 대학졸업 후 한국어를 사용하는 곳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인 교수 참여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지도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베트남 유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하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참여자	성별 (나이)	학년	체류 기간	현재전공/베트남에서 전공 (참여수업)	베트남 유학생 지도경력 (유학생 지도경력)
베트남 유학생	유학생1	여(23)	3학년	1년	한국어/한국어 (외국인 유학생 전용반)	
	유학생2	여(23)	3학년	1년		
	유학생3	여(23)	3학년	1년		
	유학생4	여(23)	4학년	2년		
	유학생5	여(24)	4학년	2년		
	유학생6	여(24)	4학년	2년	외국어/한국어 (한국학생과 함께 수강)	
	유학생7	여(22)	4학년	2년		
	유학생8	여(24)	4학년	2년		
한국인 교수	교수1	여(51)				3년(12년)
	교수2	여(39)				3년(10년)

2. 자료조사와 분석

이 연구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준비과정의 경험과 이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자료를 정리하여 범주로 분류하여 자

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Patton, 1990; 박미진 외, 2009에서 재인용). 주제 분석방법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 의해서가 아닌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데이터를 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연구 참여자의 진솔한 내면의 생각과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

면담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20분 내외의 짧은 면담과 1시간 이상의 심층면담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개인별 6~7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외국유학생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한 면담회수를 늘려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이들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와 준비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학생 8명 중 5명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2회 면담을 시행하였고 이후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면담을 추가하여 3학년 시기의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와 4학년에서의 이에 관한 생각의 변화과정을 알아보았다. 참여자 3명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면담을 시행하였다. 한국인 교수들과의 면담은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면담이 종료된 후 2017년 8월 2회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축어록으로 변환한 후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베트남 유학생들의 특징에 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기술 하게 되며, 참여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터뷰 질문의 적절성이 자료수집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질적연구 경험이 있어 연구경험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진로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베트남 유학

생들의 상황에 부합되고 이들이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베트남 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한국인 교원 2명과의 예비면담을 통해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관련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진로에 대한 질문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편안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짧은 면담에서는 유학을 오게 된 이유, 유학 오기 전 베트남 대학생활, 베트남에서의 진로준비 등의 기초질문을 하였다. 짧은 면담에서는 참여자들이 편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므로 연구자들이 진로준비용 자기소개서를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층면담에서는 이전 인터뷰 녹취록을 분석하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하였고 일대일로 면담을 진행되었다. 면담에서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유학생활하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하나요.”, “졸업 후 취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유학생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구자중 한명이 베트남 대학의 방문교수로 갈 계획이 있어 이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알렸고 참여자들이 베트남 생활적응과 문화차이 등을 안내하면서 래포(rapport)가 비교적 쉽게 형성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유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진로관련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면서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주제로 상담을 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쉽게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수업전후로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시행하였고 대상자들이 아르바이트로 캠퍼스밖에 있을 경우 유학생 기숙사근처 카페 등에서 상담을 시행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구두동의를 얻고 녹취되었으며, 연구대상 유학생들 모두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여 기초회화능력은 갖추고 있어 면담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교육학박사로 진로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전임교원 1명과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대학교원 1명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 전임교원들에게 이 연구의 목적과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자료들이 주제별로 구분되었는지,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점검받았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들의 진로에 관한 어려움과 준비과정을 범주화한 결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변경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가족의 진로간섭으로 인한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진로변경 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는 각각 두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진로탐색활동의 내용은 베트남 유학 선배를 통한 진로정보취득, 한국인 교수와 대학으로부터의 정보취득 및 진로탐색 과외활동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1. 진로스트레스

1) 진로변경 스트레스

(1) 구체적인 진로목표부재로 인한 진로변경 스트레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기업 취업이

라는 단순한 사회진출 목표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8명 학생 모두 상담에서 졸업 후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한국기업 취업에 대한 구체적 취업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유학생들은 개인사업이나 무역업 등 다양한 진로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베트남 유학생들은 업종이나 희망직무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사회진출 준비과정에서 진로목표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 유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적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졸업 후 취업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희망직종이나 직무 등의 희망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유학을 온 경우가 많아 진로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도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취업준비 스트레스를 겪게 있었으며(박미진 외, 2009), 진로스트레스 중 진로모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희, 2012). 유학생2는 상담과정에서 진로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었으며, 다른 참여자들도 구체적인 진로목표 없이 단순히 취업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베트남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해요. 중국 유학생들은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졸업 후에 한국회사에 취업하기보다는 교역이나 개인 사업이 주인데,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회사에 취업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거든요. 대학원에 진학해도 결국은 취업을 목표로 하죠.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거구요. 아니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도 한국유학이 한국회사에 취업이 유리하고 조건이 좋으니까 취업을 하죠.”(교수1)

> “통역을 하고 만약 회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마케팅에서 일하면 좋겠어요(3차 상담).

지금 여행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마케팅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생각해봤어요.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4차 상담). 꿈이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찾으면 좋은 정보 더 많이 찾으면 바꿀 수 있어요.“(유학생2)

“저는 원래 통역사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말고 외교 쪽으로, 아니면 일단은 투어 쪽 그니까 여행 쪽으로 생각도 했어요. 지금은 아마 외교 쪽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한국어 잘 하지 못하지만 문화 같은 거 이해했으니까 외교 쪽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기(이 학교) 대학원일 것 같아요. 아직 정하지 못해서..”.(유학생6)

(2) 취업불안 회피를 위한 대학원으로의 진로변경 스트레스

베트남 유학생들은 3학년 시기에는 취업 후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목표가 비교적 명확했으나 4학년 시기에 대학원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참여자 중 4학년 유학생들은 이곳에서 졸업하면 유학생 체류비자가 만기되므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대체 방안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단기간의 취업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대학원진학을 선택하지만 다시 전공선택 고민이 추가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진로변경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화되는데, 대학원 전공을 결정해야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감이 저하되며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은 취업할 자신이 60%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취직하면 좋고 안 되면 대학원 진학할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은 좀 고민이 돼요. 만약에 너무 신문방송전공처럼 외국인 많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어렵잖아요.. 아무리 취미인데 너무 불가능하면 못할 거 같아요.”(유학생6)

“일단 한국에서 한국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12월

까지 한국에서 취직 알아볼 거에요. 안되면 대학원 진학하거나요.(졸업 후 6개월까지만 국내체류가능). 사실 지금 진학하면 어떤 전공할지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유학생4)

“취업 때문에 대학원 가려구요. 목표는 취업때문이죠. 지금 취업은... 갑자기 다른 기회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 고민 많아요. 비자도 변경해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한국회사) 면접 봤어요. 지금 사실은 50대 50이에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고 그쪽 대답 듣고..“(유학생7)

2) 취업스트레스

(1) 취업불안 스트레스

베트남 유학생들이 베트남보다 생활여건이 좋은 한국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3학년 학생들은 4학년들이 겪는 한국체류 연장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취업여부에 관해 고민하고 있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자신감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김명옥, 박영숙, 2012)과 달리 베트남 유학생들의 취업불안 스트레스 이유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불안이나 스트레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심해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취직하는지 아니면 베트남 돌아가서 취직하는지 저 많이 생각해요.(중략) 여기 시설, 환경이 베트남보다 더 좋아서 베트남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졸업한 후에 여기서 취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유학생1)

"졸업하면 아마 처음에 취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실무)경험이 쌓이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무얼 할지 그냥 혼자만 생각해요. 선생님(상담자)하고 처음 이야기했어요."(유학생2)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같은 아시아 지역인 중국이나 일본 유학생과 베트남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목표에 차이가 있으며 베트남 유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열정은 취업불안 스트레스로 연결되고 있었다.

"일본 유학생들은 한국유학 동기가 외국문화 경험으로 생각해서 유학생활을 즐기는 편이에요. 중국 유학생들은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서 개인사업을 생각하고 유학생활을 해서 순진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기업 취업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수업에서도 치열함이 느껴져요. 수업 후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고 학점에 대한 관심도 높고 유학생들 간에 경쟁도 심해요. 모두 취업을 위한 준비죠."(교수2)

(2) 취업준비부족 스트레스

유학생들은 베트남에 있는 동기들보다 1년을 한국유학으로 보내게 되며 베트남에서 방학 중 필수적으로 하는 기업인턴을 하지 않아 실무경험부족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면담초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계속된 상담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나타났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유학 후 한국에 남게 될 것인지 베트남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베트남에서의 취업도 고려하고 있어 취업불안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베트남에 있는 친구보다 1년 경험부족해요. 왜냐하면 저 여기 공부

하니까요(유학과정에 1년 더 소요). 저 부족해요. 그냥 한국어를 공부해요. 다른 전공지식 부족해요. 근데 계속 공부하면 경험이 없어요. 그냥 공부해요. 대학원 졸업하고 베트남 돌아가면 나이 많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할 때 어려워요. 능력 좋지만 나이와 경험 없어서요."(유학생1)

"6월 30일에 베트남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복잡해요. 한국에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지금 베트남에 돌아가면 베트남 졸업한 후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월급도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동갑친구는 지금 다 회사에 다니면 많은 친구는 대학원이나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지금 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서. 쫌..."(유학생5)

3) 가족의 진로간섭으로 인한 진로스트레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진로결정시 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참여자 자신도 진로결정을 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가족들의 진로에 대한 의견제시와 의견불일치는 유학생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유학생 8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 어머니가 자신에게 갖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자신의 미래계획과 같지 않아 자신의 계획을 지원해주지 않은 어머니로 인해 속상해하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유학생에게 거는 기대는 같은 동양권인 우리나라의 과거와 유사하여 쉽게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족들과 진로목표가 상이한 유학생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진로목표를 가족에게까지 이해시켜야 하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엄마한테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엄마

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따오라고 아니면 집 돌아오지 말라고 그 정도에요. 지금 베트남 애들이 다 학사자격증 있으니까 너는 좀 더 높은 학위 따오라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신경 안 쓰고..(중략)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취업하고 한동안 여기 더 일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대학원 나중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엄마는 만족스럽지 않아보여서요."(유학생8)

"사실은 진로고민 많이 했어요. 지난번(지난해) 베트남에 돌아가는 거 얘기했는데, 지난 설날에 하노이 집에서 한국에서 계속 있는지 아니면 베트남에 돌아가는지 가족들하고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은 한국에 계속 있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통번역하고 한국회사에서 그런 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베트남에서) 선생님 되는 게 저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유학생5)

2. 진로탐색활동

1) 베트남 유학 선배를 통한 진로정보취득

베트남 유학생들은 진로준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진로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때 베트남 대학 선배(동문) 유학생의 조언을 신뢰하며 이를 주요 정보원천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같은 대학 선배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와 같이 비슷한 남북갈등의 역사가 있어 남부 호치민 지역과 북부 하노이 지역 학생들 간의 정보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선배들은 대학원준비와 대학원 선정에서 특정 대학을 추천할 정도로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하고 있었다.

"(대학)선배는 아르바이트 주선하고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 앞으로 대학원 가고 싶으면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봤고 선배가 충고해줬어요."(유학생2)

"약속 있으면 (대학)선배랑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기 경험 얘기해요. 최근에 여기 대학원 어떻게 할까? 공부하면 여기 대학원 다니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대학 동문) 선배님들은 여기에서 하지 말고 00대학이나 서울 대학원 가면 더 좋겠다고 얘기해요. 발전기회가 많다고 얘기해줘요."(유학생1)

"진로상담은 보통 옛날에 베트남에서 학교 같이 다녔던 아는 선배한테 페이스북에서 연락해서 받아요."(유학생6)

한국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수강하고 있는 언어계열 유학생들과 외국인 전용반에서 수업은 하고 있으나 한국학생들과 교류하고 있는 유학생 모두 한국학생들에게 진로관련 정보를 얻고 있지 않았다. 국내에서 내국인 채용과 외국인 채용이 엄격히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어 공유할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한국취업정보 또는 취업기준이 중요한 정보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한국학생과의 정보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유학생6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선배들로부터 진로정보를 얻고 있었다. 수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국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아무것도 모를 때, 친구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냥 알아서 살면 되고. 알아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검색하고, 서로."(유학생6)

"한국 학교생활은 좀 바빠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참가해야 돼서..(중략), 근데 대신에 많은 한국 친구, 한국 사람들이랑 접할 기회가 있었고, 한국어 능력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 좋은 점이고, 바쁜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유학생8)

2) 한국인 교수와 대학으로부터의 정보취득

베트남 유학생들은 교수와 대학에서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베트남 유학생대상 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학생들은 수업 중 교수들의 조언에 따라 진로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학 국제교류처의 베트남 유학생 담당선생님에게도 조언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봉사를 취업 때문에 시작했어요.. 한국선생님(교수) 기억은 잘 안나지만 수업 중에 선생님이 취업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취직하려면 자격증도 잘 준비해야하고 봉사활동하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유학생4)

"방학에 베트남 대학에서 예전에 아는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 아직도 한국어 어학당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셔서 선생님은 저한테 어학당에서 실습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그 선생님하고 연락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선생님 말고 어학당 선생님도 저한테는 여기 졸업하고 베트남에 돌아가면 어학당에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유학생5)

"여기 베트남 유학생 담당선생님 있어요. 학생이 원하면 도움 받아요. 저는 도움 못 받았어요. 저는 베트남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그거 물어본 적 없어요. 다른 학생은 베트남 선생님한테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학교 말고 다른 대학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유학생5)

"저는 유학생대상 한국사회에 관한 수업에서 요즘 한국취업이 얼마나 힘든가, 회사구조나 직함에 대한 내용설명하면서 비즈니스관련 내용을 강의해요. 그러면 특히 베트남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교수1)

3) 진로탐색 과외활동

유학생들은 미래의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탐색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의 진로관련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한국어와 관련 지식에서 부족함이 있으며, 한국어 구사능력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유학생들이 진로준비를 위해 찾은 활동은 봉사활동과 베트남에서의 인턴활동으로 나타났다. 인턴에서도 급여를 받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경력준비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기업과 한국 사람들의 업무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 “봉사활동이 많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맞추는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친구랑 베트남 고등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 했고...(중략) 앞으로 한국사람과 일을 할 거에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고 경험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사람들은 빨리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해요. 같이 일을 하면 잘 알 수 있어요.”(유학생2)

>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한국어를 조금 공부할 수 있어요. 의학단어만 빼고.. 그리고 한국 사람과 일을 같이 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베트남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보려고 했어요.”(유학생3)

> “저는 겨울방학 설날에 베트남에 돌아가서 하노이 사범대학 한국어학당 있거든요. 거기 한국어학당에서 선생님 실습했어요. 베트남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되는 거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턴이라 급여는 없었어요. 저 그냥 하고 싶어서

월급 안 받았어요.”(유학생5)

“베트남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적이거나 과한 아이들은 투쟁적으로 취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교육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뭔가 (취업의) 방법을 모르는 거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취업은 우리보다 구체화되지 않았어요.”(교수2)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베트남 유학생 8명과 유학생담당 한국인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참여자들인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어려움인 진로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진로목표변경, 대학원으로의 진로변경, 취업불안, 취업준비부족, 가족의 진로간섭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한국기업 취업이라는 막연한 진로목표를 품고 유학을 온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생각을 하며 진로목표가 계속 변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취업불안으로 거주연장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원진학을 선택하였으나 다시 전공선택의 고민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불안과 자국 친구들의 취업준비소식을 접하며 자신들의 취업준비부족에 취업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가족들의 기대와 진로목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힘들어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탐색활동을 살펴본 결과, 참여자들은 베트남 유학 선배를 통해 진로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타지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자국학생들과의 인간관계를 활용하고 있었으

며, 특히 동문 유학 선배들이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전해주는 정보원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업에서 한국인 교수로부터 얻는 정보와 대학의 유학담당센터에서도 진로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에 더해 진로탐색활동으로는 봉사활동이나 인턴활동으로 한국인의 업무성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준비를 돕기 위한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유학생들은 진로준비과정에서 구체적인 진로목표부재로 인한 진로변경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에 비해 자신의 개성을 토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인식도인 진로정체감이 명확하다는 연구결과(이태현, 김민지, 2019)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목표,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정 없이 단순히 취업만을 목표로 유학을 왔으며, 이후 진로목표가 계속 바뀌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졸업 후 거주연장 비자를 위한 대안으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원 전공의 고민이 추가되며 자신감 저하와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4학년 시기에 졸업한 유학생 선배들의 특강프로그램과 국내 대학원 전공과 진학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유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졸업 후 한국에서의 사회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유학 동기가 졸업 후 자국에서의 취업에 유리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정은이, 2009)와 달리 베트남 유학생들은 자국보다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불안으로 베트남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김효선과

이은수(2018)의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달리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체류기간이 길수록 진로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준비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정은이, 2009; 허형원, 손은령, 2011)와 동일한 결과이다. 참여자들은 이곳 유학생활을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은 할 수 있으나, 전공지식이나 실무경험에서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보다 뒤쳐질 것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매년 증가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정보를 유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진로관련 실무지식 등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 중에는 베트남 가족의 간섭으로 진로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가족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중국유학생들의 연구결과(하정희, 2008; 허형원, 손은령, 2011)와 스트레스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자들의 가족은 유학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참여자들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진로목표를 가족에게까지 이해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유학생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주요 국가별 유학생들의 특징을 구분하여 지원한다면 베트남 유학생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탐색활동으로 베트남의 대학동문 유학선배들과 한국 및 베트남 교수자로부터 진로정보를 얻고 있었다. 유학생들의 정보원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모국의 대학 동문 선배들과 수업 중 교수들로부터 얻

는 정보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출신의 외국인 졸업생커뮤니티를 추가하여 한국에서의 취업 및 사회적응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성화된다면 한국취업에 관심이 높은 유학생들의 진로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대학별 외국인 졸업생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와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진로탐색활동으로 인턴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인턴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참여하며 급여를 받기 보다는 경력 준비의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인들의 특징 및 업무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근 국내대학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과 기업과의 인턴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유학생에게도 확대하여 유학생들의 다양한 과외활동을 지원한다면, 유학생과 대학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로는 다루지 않았던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경험과 고민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베트남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진로스트레스를 범주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진로준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진로스트레스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유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천을 밝힘으로써 이 결과를 베트남 유학생들

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나아가 전체 유학생들의 진로관련 프로그램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학생의 안정적 유치를 위해 본 연구결과가 유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8명의 베트남 유학생들과 유학생담당 한국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유학신분, 체류기간, 유학동기, 전공 등의 대상자 특성을 세분화하여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적연구방법을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국내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의 원인만을 파악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의 원인과 반응과정을 연속선상에 함께 분석하고 진로스트레스의 순기능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증가하는 베트남 유학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을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으로 확장하여 이들의 진로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유학생들의 진로관련 고민과 경험 등을 비교분석한다면 유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9년 1월 23일
심사완료일: 2019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6일

참고문헌

김대현·김아영·강이화. 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3):159-187.

김명옥·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69-90.

김미영·이유아·송연주. 2018.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4(1):481-503.

김수경. 2015.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활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효선·김은수. 2018.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국 및 베트남 유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47:51-67.

류은주. 2016.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3):157-168.

송정남. 2015. 「베트남 탐구」. 서울: HUINE.

박미진·김진희·정민선. 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417-435.

성희진·나승일. 2012.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력개발역량과 경력탐색행동 및 대학경력개발지원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83-108.

안진우. 2018.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국가별 비교연구: 중국, 베트남 유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왕수영(Vuong Thuy Anh). 2019.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이 베트남유학생의 대학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응웬 뚜언 아잉·응웬 마인 뚜언. 2015.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SNS 이용과 문화적응.” 「2015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 학술대회」.

이현주. 2008. “개인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활동 수준의 효과.” 「진로교육연구」 21(3):119-135.

이사사. 2012. “진로결정상태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진로장벽의 차이 분석: 재한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1461-1479.

이태현·김민지. 2016. “유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6(1):71-88.

이현림·김순미·천미숙·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59-80.

정은이. 2009. “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과의 진로관련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진로교육연구」 22(4):109-131

최윤경·김성회. 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2085-2097.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473-496

허형원·손은령. 2011. “재학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1):51-66.

Hofstede, G. 1986. "Cultural differences in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3):301-320.

Houston, V. 1991. Making it work finding the time and energy for your career, marriage, children, and self. New York: Simon & Schuster.

Merriam, S. B. 2010.「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강윤수, 고상숙, 권오남, 류희찬, 박만구, 방정숙, 이중권, 정인철, 황우형). 서울: 교우사.(원저 1998 출판)

Smith, C. L., & Gerhart, B. 1991. "The impact of job search strategy and interviewer assessments of employability on multiple measures of

labor marker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s, Miami, Fl.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 Brooks/Cole.

교육부.2018.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cesi.kedi.re.kr

KOTRA. 2018. “(베트남)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Stres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Vietnamese Students in Korea

Kim, Mi-Young · Lee, Yoo-A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Vietnamese students' career stress and practicing career exploration while studying in Korea. In-depth interview with eight Vietnames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Korea and two Korean professors were conduct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derive key themes and content. The interview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2016 to August 2017.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areer stres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stress were divided into 3 components: career change stress, job-seeking stress, career stress by family. Vietnamese students had career change stress, graduate school major selection stress, job-seeking anxiety, lack of career preparation stress, career stress by their family. The results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ere divided into 3 components: career information acquisition from Vietnamese college senior, career information acquisition from Korean professors and college,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career explor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Vietnam students, Career stres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Qualitative research